

# 포스트 포스트

인문정신문화 정책 체험 사례집

세대 / 이웃 / 가족을 이어주는  
인문정신문화

# 인문 정신

## 인문정신문화 정책 체험 사례집



세대 / 이웃 / 가족을 이어주는  
인문정신문화

꽃  
꽃이  
는  
첫  
인문  
정신

인문정신문화 정책 체험 사례집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 |     |                    |     |
|-----|--------------------|-----|
| 01. |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할머니     | 7p  |
| 02. |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한 나     | 10p |
| 03. | 연속극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활동 | 14p |
| 04. |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가치     | 18p |

###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 |     |                                 |     |
|-----|---------------------------------|-----|
| 01. | 어둠 속의 대화를 다녀와서                  | 25p |
| 02. | 경남의 휴먼로드를 가다                    | 28p |
| 03. | 답으로 보는 미술사적 의미<br>- 축축한 초가을의 경주 | 31p |
| 04. | 함께 걸으면 행복해집니다                   | 35p |

###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 |     |                    |     |
|-----|--------------------|-----|
| 01. | 문학과 역사를 눈과 손으로 느끼다 | 41p |
| 02. | 친구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 44p |
| 03. | 잘 보이지 않던 것을 바라보기   | 46p |

### 인생나눔교실

- |     |                   |     |
|-----|-------------------|-----|
| 01. | 도자기를 빚으며 내 꿈 빛기   | 53p |
| 02. | 꿈은 꾸는 자의 몫이다      | 58p |
| 03. | 깨달음이 담긴 한 마디 한 마디 | 62p |

### 인문예술캠프

- |     |                      |     |
|-----|----------------------|-----|
| 01. | 이미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본성' | 69p |
| 02. | 달빛감성 숲에서 바다, 바다...   | 71p |
| 03. | 멋진 청년, 배낭을 메다        | 77p |

### 인문독서아카데미

- |     |                       |     |
|-----|-----------------------|-----|
| 01. | 노트북을 훑친 아이, 세상을 다시 보다 | 86p |
| 02. | 취준생의 해방구, 인문학 그리고 오페라 | 90p |

### 병영독서코칭

- |     |                      |      |
|-----|----------------------|------|
| 01. | 2주에 한 권, 설렘과 기다림의 시간 | 97p  |
| 02. | 작은 변화로 막을 연 독서인생     | 101p |
| 03. | 독서로 만드는 따뜻한 병영문화     | 105p |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 사업목적

전통 무릎교육의 현대적 재현을 통한 조손 세대 간 문화 전승 및 유아인성 함양

### 정책대상

여성 노년층(이야기할머니), 유아

### 운영형태

한 분의 이야기할머니가 한 유아 교육기관에 연간 30차례(1주일에 1회)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 연간운영

5,520개 유아 교육기관, 1,988명 파견, 36만여 명 수혜

01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할머니

02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한 나

03

연속극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활동

04

교학상장  
(敎學相長)의 가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

01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할머니



인천 진흥유치원 | 박상혁(6세), 엄마 황윤아



## — 이야기할머니가 가진 장점

요즘 아이들은 제가 어렸을 때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어디서든 들어 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들을 기회가 많았지만 요즘은 전해 내려오는 선현미담이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대신 근거가 명확한 이야기나 책에 나오는 이야기만을 아이들에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닌, ‘이야기할머니’라는 푸근한 존재를 통해서 옛이야기를 듣는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만 하더라도 이야기할머니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다음 시간에는 칭찬 선물을 주시기로 했다며 무척 기뻐했어요. 진짜 할머니에게 칭찬받은 것처럼 말이죠.

## — 이야기할머니가 전하는 이야기

이야기할머니는 이야기를 천천히 해 주신다고 해요.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는 속도가 빠른 편인데 이야기할머니는 천천히 읽어 주셔서 잘 모르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할머니가 해 주시는 옛날이야기들이 진짜냐고, 의심하고 궁금해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아이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야기의 신빙성을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또 다른 배움의 방식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 이야기할머니가 들려주는 선현미담이 가진 의미

제가 생각하는 선현미담의 힘은 아무래도 옛사람들의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다는 데에 있어요. 단순히 재미있고 신기하기만 한 이야기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교훈을 생각하다 보면 아이에게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거든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전래동화집을 사주는 이유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인성 교육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바른 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곧고 진실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옛날이야기를 이야기할머니가 많이 들려주셨으면 해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02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한 나



예원유치원 담당 이야기할머니 | 문홍자(73세)

### —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

요즘 음식문화와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삶을 넘어서 이전 제3의 삶도 준비해야 할지 모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은 남은 삶을 멀리 보고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나이였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인에게 고민을 말하며 자문을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망설임 없이 동화구연 배우기를 권유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동화구연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 꿈과 희망과 사랑을 심어주는 이야기할머니

농경사회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 어른들이 해주는 옛날이야기를 일상적으로 들으며 자랐습니다. 옛날이야기 속에서 착한 일과 나쁜 일을 분별하고 효도, 슬기, 지혜, 우애를 깨달으며 아름다운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선현미담보다 스마트 폰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문화 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사랑을 심어주는 이야기할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마침 지인의 소개로 한국국학진흥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와 면접전형에 합격한 날, 저는 하늘을 날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했고 친구들과 모여 놀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공부할수록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만남

아이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제가 만날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지정받았습니다. 유치원 세 곳을 사전에 답사하고 그 아이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막상 그날이 오자 두려웠습니다. ‘내가 잘 가르칠 수가 있을까?’, ‘나를 좋아할까?’하는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첫 수업을 앞두고 유치원 문을 들어서자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이야기할머니다!”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수업의 대상은 7세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손유희를 따라 하며 아이들은 금세 즐거워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즐거운 오월>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등장인물인 콧바람, 돌쇠, 활쟁이, 키다리 넷의 모험과 활약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웃고 손뼉을 치며 재미있어했습니다. 4개 반을 대상으로 첫 수업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수업은 5세 어린이들이 모인 4개 반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5세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이야기는 듣지 않고 떠들면 어떻게 대처하지?’ 걱정하며 유치원 문을 들어서었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이야기할머니다!”하며 좋아했어요. 교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 속으로 순하게 들어와 주었고, 예상보다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아이들은 만날 때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1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 — 이야기할머니를 통해 변화된 삶

이야기할머니로 활동하면서,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매월 있는 자매모임에서 동생들은 제가 참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과 즐거운 일들을 얘기할 때마다 제 눈에서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뿌듯함과 보람, 또 더 잘 가르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활력소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제 성격이 무척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모든 일에 흥미를 느끼며,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해요. 며느리는 제가 원래 말을 재미있게 하는 편이었지만 이야기할머니가 되면서 더욱 조리 있게 말을 잘하고 발음도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이야기할머니로서 산 삶이 제게 준 변화들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

03

연속극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활동



예그린유치원 담당 이야기할머니 | 유현숙(68세)

## — 삶의 활력이 된 이야기할머니

이야기할머니가 되고 난 후 날마다 몹시 바빠졌습니다. 이야기할머니가 되기 전에는 아침 연속극을 보느라 푹 퍼져 있던 제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오늘 할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어린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옷매무새도 바로잡고 하면서 제법 멋을 내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젊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게 다 이야기할머니를 시작한 뒤로 생각이 돌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도 아주 멋진 이야기할머니가 된 것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갓 피어나는 예쁜 들꽃처럼,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처럼 제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있습니다. 한번은 제 이모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할머니를 시작하게 되었노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모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정말 우리 질녀는 훌륭하고 재미있게 사는구나. 그 용기가 고맙다.”

이런 기쁨을 저 혼자만 누릴 수 있나요? “세상 할머니들, 이야기할머니가 되어 보세요!”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꽃나무만 자라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야기할머니도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 —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다

이야기할머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유치원에 첫발을 들여놓은 날, 어찌나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렸던지. 그런데 어느새 일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군요. 처음에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생각이 많았지만, 막상 우리 유치원 친구들과 마주 앉으니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아니라 앞에 앉아 있는 유치원생이 된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쳐다보며 열심히 듣는 친구들, 이야기를 다 듣고는 자기 나름대로 발표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일을 시작하길 잘했구나……’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용기가 생겼다는 생각에 정말 흐뭇한 마음입니다. 누구를 만난든 제가 이야기할머니라는 걸 자랑하면서 다니게 된답니다.

### —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다

처음 이야기를 할 때는 옆 친구들과 장난치거나 때리고 싸우는 친구들, 드러누워 있던 친구들을 보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까 걱정도 많이 하였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할머니 빨리 의자에 앉으세요. 다리 아프잖아요.” 걱정을 해주고 또,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좀 이상해지면 “할머니 빨리 물 드세요.” 하면서 저를 염려해주는 말을 해 준답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나길 참 잘했다는 생각뿐입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우리 꼬마 친구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이 산책하다가 저와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이야기할머니! 어디 가세요?”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보니 한 80명쯤 되는 친구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하도 고마워서 길거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두 안아주었지요. 이 마음은 아마 누구도 모를 거예요. 이야기할머니의 뿌듯한 마음, 정말 무언에 비교할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 — 보람되고 즐거운 제2의 삶

일단 저 자신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보여줘야 하니깐요. 일상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찾아온 게 사실입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삽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외우면서 걷고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혼자 중얼중얼 외우는 일이 잦다보니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그때는 저 자신도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또다시 중얼중얼……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버스에서 내린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곱게 단장하고 유치원에 가는 모습을 본 이웃집 할머니들이 자기들도 그 일을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같이 하자고 하면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지요. 날마다 예쁘게 단장하고 가는 모습이 몹시 부럽나 봅니다.

제 다섯 살 외손자는 저를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듣다가 어느샌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제가 이야기를 멈추면 또 해달라고 합니다. 그 나이 또래는 다 그런가 봅니다. 할머니가 이야기할머니라는 것을 어린 손자도 알고 있나 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즐거우니 세상 모두가 편안하게 느껴지고 무지갯빛이란 것을 이야기할머니가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

04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가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교육 강사 | 서울독서교육연구회 정순재(52세)

## 가벼운 시작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저는 이야기할머니 실습강사로 같이 했습니다. 그것이 큰 행운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별다른 고민 없이 좋은 사업인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시작했던 이야기할머니 실습강사가 제 삶을 이렇게 많이 바꾸어 줄 줄은 정말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도서관이나 기업에서의 독서지도사 일과 별다른 게 없을 줄 알았습니다. 물론 교육 대상자가 할머니라는 것은 낯설기도 했지만 이야기 교육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 부담감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짐작은 처음부터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교육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가진 이 사업에 대한 열정과 긍지, 할머니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 및 아이들에게 좋은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어른으로서의 사회적 부채의식에 따른 책임감은 처음 가졌던 제 생각을 바꾸기 충분했습니다.

## 할머니들의 열정

제가 맡고 있는 월례교육은 사실 저에게도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일입니다. 전국 사업으로 발전하면서 월례교육은 6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씩 총 9회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선발된 할머니들을 이야기할머니로 변신시키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변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월례교육에서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책임감도 무겁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이야기할머니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제대로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국국학진흥원이 추구하는 격대교육의 가치와 인성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게 됩니다. 즉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것은 할머니가 이야기를 재미있고 정확히 들려주는 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서울에서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대전으로, 제주도로 이동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월례교육을 시작하고 할머니들을 뵙자마자 저는 늘 반성하게 됩니다.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할머니들 역시 목포에서 광주로, 통영에서 부산으로, 태백에서 서울이나 원주로, 봉화에서 대구로, 태안에서 대전으로,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새벽밥도 채 드시지 못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 오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그렇게 먼 길을 오셔서 다시 그 먼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이야기할머니가 되고 싶으신 걸까?’

이야기할머니가 되어서 수업을 하고 받으시는 활동비는 경제에 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적은 돈입니다. 이야기 수업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가야하다 보니, 차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자비를 써가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도 계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남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들은 일 년 동안 힘들게 이야기를 외워서 일주일에 3일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늘 해오시던 또 다른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할머니들도 많습니다. 할머니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은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수업의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며, 더 배워야겠다는 열의가 강합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도 늘 저에게 오셔서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시거나, 실습 때 들었던 지적사항을 되묻고 고마워하십니다.



## — 나도 바뀐다

할머니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저 역시 많이 반성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도 저처럼 내 삶에 열정이 남아있는가,’ ‘우리 할머니들의 열정에 난 얼마나 보답을 하고 살고 있는가.’

월례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늘 그런 생각들을 버릇처럼 하면서 저를 다잡습니다. 또한 할머니들께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정직해라’, ‘남을 도와줘라’,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등 많은 현대인이 당연히 알고 있지만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저 역시 자격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도 월례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 사업단에게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방법을 가르치지만 할머니들은 저에게 참된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꼭 그 가치를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저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 사업목적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

### 정책대상

대한민국 국민(공공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 등)

### 운영형태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8회 내외 인문강좌와 탐방 결합 프로그램 시행

### 연간운영

281개 도서관, 2,716회 운영, 86,000여 명 수혜

01

어둠 속의 대화를  
다녀와서

02

경남의 휴먼로드를  
가다

03

답으로 보는  
미술사적 의미

04

함께 걸으면  
행복해집니다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

01

어둠 속의 대화를  
다녀와서



해밀도서관 프로그램, '시각장애인, 인문학에 눈뜨다!' 참여자

경기 김포시 이현경(43세, 회사원)

## — 의문으로 시작된 참여

지인의 소개로 참여하게 된 ‘어둠 속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 북촌. 그곳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 저는 그저 눈가리개를 이용하거나 어떤 연출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오감을 동원해 어둠을 체험하겠거나 짐작했습니다. 동행하게 된 네 분의 시각장애인이 이 프로그램과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삶 속에 자리한 어둠은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공기처럼 편하게 순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의 대화’는 그들에게 별로 특별한 게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안고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 — 새로운 어둠

정해진 시간에 제가 접한 어둠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생각마저 움츠러들게 하는 공포였습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같은 세상. 오로지 촉각과 청각, 시각을 제외한 감각에만 의지해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로드 마스터님의 안내 없이는 난간을 잡을 수도, 한걸음 떼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가슴은 졸아들고 식은땀이 솟았습니다. 그동안 어둠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두 명씩 짝을 이룬 총 여덟 명의 체험자는 차분한 로드 마스터님의 진행으로 어둠 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공원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았고, 표를 끊어 모터의 진동이 강하게 느껴지는 배도 탔습니다. 시장에서 물건도 사보고, 카페에 가서 음료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비시각장애인이 평범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던 일상을 잠시 장애인이 되어 살아보았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는 것도,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는 것도. 어느 것 하나 두렵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지인의 팔에 의지하고, 로드 마스터님의 손길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의 재미있는



진행과 함께한 분들과의 즐거운 호흡 덕분에 백 분의 시간이 삼사십 분으로 느껴질 만큼 빨리 지나가긴 했습니다.

### — 나의 모든 것에게 감사한 시간

로드 마스터님이 실제로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느꼈던 감동은 글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시각이 불편할 뿐 그녀는 예쁜 목소리를 가진 여성이자 훌륭한 전문가였습니다.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에 의존하여 마지막 출구를 나가기까지 같은 입장이지만 마치 엄마의 손을 놓지 못하는 불안한 어린아이처럼 저는 로드 마스터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현실 속의 시각장애인들이 느낄 두려움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머릿속으로만 짐작하고 상상했던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실제로 받아들였을 때 솔직히 좀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나의 눈에게, 나의 감각들에게, 나의 모든 것에게.

삶 속에서 이렇게 귀한 경험은 흔치 않습니다. ‘어둠 속의 대화’에 초대해준 해밀도서관의 류혜정 사서에게 감사하다 말하고 싶고,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혜성 로드 마스터님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분의 아름답고 지적인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가까운 이들에게도 꼭 한 번 가져보라고 권하고 싶은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

02

경남의 휴먼로드를  
가다



성산도서관 프로그램, '경남의 옛 시와 한국적 휴머니즘' 참여 수기  
경남 창원시 이미자(48세, 주부)

## — 인문학이 길 위로

도서관 실내에서 만나곤 했던 인문학이 길 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은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을 잠시 허락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는 듯합니다. 여행자들은 서로의 말, 행동, 표정 하나까지도 이해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인문학을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과 공유하는 마음이 더욱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 — 살아 움직이는 역사

아침 일찍 도서관에 모인 사람들은 떠난다는 아니, 일상에서 벗어나는 이유만으로 만족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문학 여행은 시작되었어요. 창원성산도서관을 출발하여 함안, 진주, 산청을 거쳐 조선의 아카데미 함양의 서원을 향했습니다. 여행지를 지날 때마다 차 안에서 그곳의 역사와 인물에 대해 세세한 설명을 들려주시는 교수님의 열정은 대단하셨습니다. 늘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한 줄 모르듯이, 역사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니다. 역사책에서 피상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대하다가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몇백 년 전의 역사가 지금 우리 곁에서 같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 — 자연 속 소박한 일상

가장 먼저 함양 남계서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그 시대 학문에 힘쓰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서원에서는 그들의 정신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다시 초계서원, 청계서원을 거쳐 화림 계곡을 향했습니다. 화림 계곡에서는 물, 바위, 정자, 그리고 사립들의 여유와 풍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화림 계곡은 그 말을 정말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치열한 세상과 학문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풍류를 즐기는 여유랄까…… 아니, 그보다는 선비들의 소박한 일상이 그려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유토피아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정자는 다른 정자들보다 화려하지 않아 주위 자연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군자정이었습니다. “선비란 그런 것이다.”라고 군자정은 몸소 초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 — 길 위에서 만난 나

우리의 인문학 여행은 길 위에서 시작하여 역사 속 그들을 만나고 사유하고 몸으로 느끼면서 진정한 나, 그리고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 우리는 긴 역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챙겨주신 도서관 선생님들과 흔쾌히 문화해설사로 좋은 말씀을 나눠주신 창원대학교 장성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

03

탑으로 보는 미술사적 의미  
- 축축한 초가을의 경주



창원도서관 프로그램, '탑으로 보는 미술사적 의미' 참여 수기

경남 창원시 조은혜(35세, 주부)



촉촉한 초가을의 경주. 어스름한 안개 속에 빠져있다 돌아온 이 느낌을 고스란히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 이천 년 전 경주로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황룡사 코스모스밭의 가을 빛깔과 그곳을 둘러싸고 있던 산, 자옥한 안개들이 그날의 아름다움에 한몫을 했습니다. 매년 분황사 탑만 보고 돌아갔었는데, 이런 길이 있었다니! 오랜만에 탄식했습니다. 황룡사 절터의 주춧돌 중심에 서서 한 바퀴를 빙 돌아보니 제가 이천 년 전 경주에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 — 아름다운 길

더욱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 정렬된 수많은 집들과 빼곡히 그 사이를 메운 풍경과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중심에서 우뚝 솟아 있는 황룡사 9층탑의 아름답고 거대한 자태. 아! 정말 이 탑이 빨리 재현되어서 이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견! 탑곡마애불상군. 무엇보다 이곳으로 가는 길이 무척 정겹습니다. 작은 마을은 평온하고 좁은 개울 사이로 밤나무, 탕자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으며, 이름 모를 분홍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길. 고슴도치 새끼 같은 작은 밤송이들이 입을 벌리고 환영해주는 멋진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산길을 조금 걸어가면, 탑곡마애 7층탑이 새겨진 거대한 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돌에는 4면 모두 불상과 탑, 사자 등이 새겨져 있었는데 장비가 부족했을 옛 시간을 떠올려보면 정말이지 석공들의 노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인문학의 힘

초록이 무성한 산골 깊은 곳에 진중하게 서 있던 장항리탑과 우리들만 볼 수 있었던 빼곡한 나무들 속 감은사지탑은 우리를 안내한 정형진 선생님이기예 가능했던 탐사의 멋진 묘미였습니다. 탑이 주계였지만, 이 탐방을 통해 길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걷고 있는 이 길 위에서 진정한 인문학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경주에서 하나하나의 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가졌던 느낌, 길 위의 인문학이 주던 느낌을 고스란히 일상 속에 녹여 살아가자.’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 그곳의 역사가 궁금해지고, 그로 인해 현재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궁금해지고, 그리하여 사람을 알아가면서 또 사랑하면서 가슴 따뜻하게 살아가야지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길 위의 인문학의 힘이겠지요.

## — 탐방에서 남은 숙제

정형진 선생님은 30년 동안 경주에 살면서 이곳저곳 스스로 발로 뛰며 역사를 탐구하셨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역사 속 사람들이 함께 살아요. 그래서 머릿속이 심심하지 않죠.”

많은 곳을 보고, 그곳에 대해 공부하고, 그것들 간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방대한 역사적 지식을 정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머릿속 지식을 한꺼번에 여러 권의 책으로 쏟아 내셨는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정말 그것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0년을 백수로 살아왔다고 강조하시면서, 마지막 인사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교하지 말자. 내 삶을 살자.”

진정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생님의 삶 자체가 녹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자문이 이번 탐방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04

함께 걸으면  
행복해집니다



전주시립송천도서관 프로그램, '걷고 싶은 길, 함께 하는 인문학' 참여 수기

전주시립송천도서관 사서 윤지현(33세)

## 강연+탐방 특별 프로그램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진행하던 강연 위주의 인문학 프로그램과 달리, 강연과 탐방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탐방 준비부터 안전 문제까지 챙길 것도 많고, 신경 쓸 부분도 많아 담당자로서는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프로그램과 달리 참가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호응하고, 다음 프로그램을 기대하다보니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힘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지역 인문학자와 지역민의 소통

또한 내 고장 전주, 넓게는 전라북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강사를 섭외하여 지역의 인문학자와 지역민이 소통하고,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소홀했던 내 고장에 대해 알아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공공도서관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

사실 특별한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함께 걷고, 보고, 듣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업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하루 종일 함께 걸으면서 참가자들끼리 서로 알아보고 챙겨주는 모습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문학을 장려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떤 배움보다도 길을 걷다 오디를 따 먹고, 뒷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소하면서도 소중한 시간들이 함께한 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에게도,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길 위에서 진정한 인문학을 만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백의관  
기초위위인문학

##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 사업목적

교과과정과 연계한 박물관별 인문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 함양

### 정책대상

전국 초·중·고등학생

### 운영형태

1개 박물관 당 40회 이상, 교과과정과 연계한 인문강좌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연간운영

전국 121개 박물관, 5,707회, 170,000여 명 수혜

01

문학과 역사를 눈과  
손으로 느끼다

02

친구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03

잘 보이지 않던 것을  
바라보기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01

문학과 역사를  
눈과 손으로 느끼다



한국현대문학관 프로그램, '문학, 시대를 비추다 : 1900~1955 근현대문학' 참여 수기  
해성여자고등학교 도서부 최다연(17세)

## — 문학작품 속에서 발견한 가슴 아픈 근현대사

버스에서 내려 좀 걷자 곧 ‘한국현대문학관’으로 가는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길을 따라가니 곧 건물이 보였어요. 내부는 아담했지만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관람에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대문학을 배우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학작품들이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아픔과 삶의 애환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이 작품에 잘 녹아있어 입을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작품도 훌륭하지만 아름답지는 않아도 현실을 잘 묘사하거나 풍자적인 작품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 — 작품의 의미에 한 발 더 다가선 시간

대개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만 공부하고 설사 따로 책을 사서 보더라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시인과 작가, 그리고 그들의 작품에 대해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알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 아는 것이 나올 때마다 반가웠습니다. 예전에는 이상의 「날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전영택의 「화수분」을 읽으며 ‘와, 정말 힘든 삶을 살았구나’에서 그쳤지만 그 작품을 쓴 작가의 삶과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면서 작품이 좀 더 값지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 — 깃발책을 만들며 손으로 느낀 문학의 향기

설명을 들은 후 둘러본 문학관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성적표를 통해 우리말을 배우는 시간을 점차 줄여나갔다는 사실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시된 시와 소설들에서 문학가들의 혼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설명과 관람이 끝나고 나면 항상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깃발책을 만들었습니다. 작가와 시인들의 정보를 넣어 직접 책을 만드는 것이라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문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02

친구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해금강 테마박물관 프로그램, '박물관 사람들' 참여 수기

계룡중학교 하서린(14세)



### — 꿈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꿈은 박물관 큐레이터예요.” 제가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이나 부모님 모두 그게 어떤 직업이냐고 되물어봐요. 사실 선생님과 <박물관 사람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큐레이터가 어떤 직업인지 저조차 다른 사람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 — 내 꿈에 더 가까이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은 어떤 공간이고 무엇을 위한 곳인지 알게 되었어요. 또, 큐레이터란 직업이 막연하게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 모습처럼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라 유물 보존부터 연구, 전시, 교육 그리고 공연까지 팔방 미인이 되어 다양한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서 매우 뜻깊었어요.

### —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

<박물관 사람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막연했던 꿈이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어요. 이젠 혼자서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답사하고 스스로 찾아가 공부하면서 저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보려고 해요. 박물관이나 큐레이터란 직업에 대해서도 더 많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고마워요, 학예사 선생님!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

03

잘 보이지 않던 것을  
바라보기



규남박물관 프로그램, '호기심 천국, 규남 하백원을 만나다' 참여 수기  
규남박물관장 이영숙(57세)

궁벽한 산골 마을에 자리한 규남박물관에는 규남 하백원(1781~1844)의 동국지도와 만국전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동국지도는 1811년에 제작되었으니, 1865년경에 제작된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의 대동여지도보다 50여 년 정도 빨리 제작된 것입니다. 전시실 관람객들은 우리나라 지도는 김정호 선생님만 그린 줄 알았는데, 다른 지도가 있다는 것을 왜 지금까지 몰랐는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지도는 세상 일부나 전부의 상태를 기호나 문자를 사용하여 실제보다 작게 그린 것입니다. 지도에는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 사회적 정보가 집적되어 있으며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의 정확성과 다양성의 여부는 국가의 경제, 문화 수준의 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에도 지도는 토지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 사업계획, 행정, 교육, 군사, 문화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인간의 모든 생활 분야에 필수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각 지역을 부분적으로 그린 지도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관청의 벼치나 산천, 내막, 도로, 마을 수, 인접고을, 전답의 대소, 국경의 경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역이나 진을 그린 지도들이 조금씩 합쳐져 전국지도가 그려지게 되고, 규남 선생남도 지방지도들을 합쳐 동국지도를 완성하였습니다.

김정호 선생님은 그동안 그려진 동국지도들의 거리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모든 고을을 걸어 다니면서 거리를 확인하고 대동여지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역경과 고생 속에 완성된 김정호 선생님의 대동여지도는 그 어느 것에도 비할 데 없는 훌륭한 지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김정호 선생님의 대동여지도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지방지도와 그 이전의 동국지도가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규남박물관에서는 규남 선생님과 그 후손들이 남긴 지도를 바탕으로 <마을지도 그리기 '길 위의 인문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 만큼은 잘 알 듯한데도 막상 그리기는 쉽지 않은 듯 망설이곤 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친구 집, 자주 다니는 문구점,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있는 놀이터,





빵집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리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지도들에는 학교와 학원, 우체국, 은행, 대형 마트, 큰 아파트, 골프장 등을 그려놓습니다.

아이들 눈에 어른들이 주로 다니는 관공서와 크고 거대한 건물이나 시설들은 쉽게 들어오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자주 다니는 육교 앞 가라앉은 듯 자리 잡은 문구점과 골목 입구의 동네슈퍼, 길가의 양말가게들은 그다지 눈길을 끌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어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경제적 최대 성과와 결과적으로 최고의 것만 인정하는 사회풍조가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지 반성이 되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인간 누구나 비록 빛나지 않더라도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모습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사회. 인간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제각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 아이들도 자기 생각대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엄마 몰래 먹던 쫄면도 과자부터 복사기까지 없는 것 없는 학교 앞 문구점이나 앞치마에 잘 닦아 빛을 내는 사과가 담긴 소쿠리가 나란히 줄 서 있는 골목 과일 가게, 없는 물건 없이 가득 찬 만물상들이 아이들의 마을지도에 자리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순식간에 나타나지 않는 인문학 프로그램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제 막 발걸음을 떤 인문학이 무소의 뿔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인생나눔교실

## 사업목적

노년층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청년층과 지속적 만남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하고, 참여자 삶의 긍정적 변화 유도

## 정책대상

소외청소년 및 국군 장병(보호관찰소·아동센터, 격오지 군부대 등)

## 운영형태

인생나눔 멘토 250명을 250개 멘티그룹에 파견,  
8회 내외의 소규모 지속적 멘토링 운영

## 연간운영

268개 멘티그룹, 2,100여 회, 5,000여 명 수혜

01

도자기를 빚으며  
내 꿈 빛기

02

꿈은 꾸는 자의  
몫이다

03

깨달음이 담긴  
한 마디 한 마디



인생나눔교실

01

도자기를 빚으며  
내 꿈 빚기



경기 안성 미사일1300대대 프로그램, '갈매기의 꿈' 외 참여 수기  
인생나눔멘토 권행완(51세, 전 공무원)

## — 꿈을 잃은 세대

한국은 일제 식민지와 6·25전쟁까지 겪으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최악의 조건에서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를,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달성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최첨단 IT기술로 정보화를 선도하고 있고, 한국 드라마와 K-POP 등의 한류(韓流)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전해져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한국의 탁월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이버 공간 등에서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용어들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포세대라고 하여 직업, 결혼, 연애를 포기한다고 하더니 그 포기 대상이 점점 늘어 오폭세대, 칠포세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헬조선(지옥+조선), 지옥불반도(지옥불+한반도)라고 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다 아우르면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렸다’는 메시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꿈을 잃어버렸을까? 앞선 세대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조건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꿈을 잃어버렸을까? 이상하지 않은가? 국가가 빈곤하고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각자 꿈은 가지고 있었는데…… 젊은이들의 비명과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꿈을 찾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뭘까?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인생나눔교실 멘토를 시작했습니다.

## — 도자기를 빚으며 내 꿈 빚기

우리가 처음 찾은 멘티 집단은 미사일 1300대대였습니다. 첫날 우리를 만나자마자 우리 손을 잡아주고 그중의 몇 명은 꼬옥 껴안아 주기도 했습니다. 기분좋은 환영 인사였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각자 이름과 꿈을



얘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요리사, 간호사 등 자기 꿈을 야무지게 말하는 멘티들도 있었지만 그중 1/3 정도는 꿈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도 안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꿈은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자 내 삶을 빚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경험을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촌놈이었는데 군대 와서 제 꿈을 만들고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공무원도 되고 또 계속 공부해서 박사까지 되었다고. 그 꿈의 시작이 군대였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그저 고생하는 DMZ로만 생각하지 말고 '꿈을 만드는 Dream Making Zone'으로 생각해보자고 제의했습니다.

전역해서 만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흠으로 도자기를 빚듯이 내 꿈을 빚어보자고 했습니다. 유혜진 멘토는 돌아가며 한 명 한 명에게 도자기 빚는 방법을 얘기해주면서 함께 도자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장병들의 등을 다독여주며 다시 꿈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대를 두 번째 방문한 날에는 장병들이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또 자기 꿈을 얘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20명 전원이 자기 꿈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좋은 꿈이라고 거듭거듭 칭찬해줬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실천하면, 꿈도 나에게로 다가와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그러나 내가 꿈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꿈도 나에게 오지 않고 더 멀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Jonathan Livingston Seagull)이라는 갈매기가 왜 그렇게 나는 연습을 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세상에 의해 날개가 꺾여서 안 된다고. 유해진 멘토는 무거운 물레를 가져와서 돌리며 장병들과 함께 ‘꿈의 작품’을 빚었습니다. 재미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칠 때쯤 보니 처음 20명보다 10여 명이 더 많은 약 30여 명이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 역시 장병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꿈꾸는 1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자고 했습니다. 다들 진지했습니다. 가장에서부터 회사원, CEO, 요리사, 농장주인 등 모두 구체적이고 그럴듯 했습니다. 장병들이 자기 꿈을 빚어가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중 어떤



장병이 “내 꿈을 생각하니 빨리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름 뿌듯했습니다. 꿈을 꾸는 장병들이 하나같이 듬직하게 보였습니다.

### — 한 사람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으로

장병들과의 마지막 만남. 장병들은 자기가 빛은 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병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자식들이 잘되기만을 바라며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요약했습니다. 그날 장병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꿈 중에 하찮은 꿈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소중한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흙 주무르듯이 몸으로 해보자!”

흙을 밟고 있는 동안 장병들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인생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성스럽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써서 ‘갈매기의 꿈, 多dream니다’라는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유혜진 멘토는 장병들이 빛은 도자기를 몇 번이고 불에 굽고 말려서 꿈의 작품으로 만들어 장병들에게 보냈습니다. 흙으로 도자기를 빚듯이 그 꿈을 꼭 빚으라고.

이 작은 하나하나의 꿈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꿈으로 커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더 매력 있는 대한민국으로!

인생나눔교실

02

꿈은 꾸는 자의  
몫이다



춘천 꿈자람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고래, 꿈, 친구 그리고 소리' 외 참여 수기  
인생나눔멘토 이백우(63세, 전 고교 교사)

“선생님, 고래는 어떻게 새끼를 키워요?” 3학년 수빈이.

“선생님, 귀신고래는 뭘 먹고 살아요?” 5학년 재민이.

“선생님, 돌고래가 이겨요? 범고래가 이겨요?” 2학년 재우.

사방에서 쏟아지는 질문과 재잘거림, 초롱초롱한 눈망울, 한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의욕적인 학습현장을 체험하기는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40년 동안 덩치 큰 고등학생들만 가르쳐왔던 터라 꼬맹이들의 생동감 넘치고 부산한 모습에 쉽게 적응이 되지 않았습다.

교직에서 정년퇴직하고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국내 관광안내사와 관광통역사 등 관광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인생나눔교실 멘토를 공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교직 경험을 살려 새내기세대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동기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집단면접과정을 거쳐 선발된 후 연수를 받으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경력과 이력을 가진 분들을 만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화작가로 유명한 신정민 선생을 파트너로 배정받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 작가의 동화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심성을 가진 분이기예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7월 31일, 드디어 강원권역 2조의 첫 선발대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꿈자람 지역아동센터 봉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유례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첫 발령을 받고 임지로 향하는 꽃내기 교사의 설렘을 가지고 아동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첫날의 주제는 ‘고래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꿈과 자유, 평화의 상징인 고래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배우고, 고래를 통하여 나름의 상상력을 키우고 또한, 평화를 사랑하는 고래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부활동을 ‘너+고래, 나+고래, 돌+고래’로 구분하여 조별로 상대방

이미지에 어울리는 고래 그리기, 그리고 자기가 되고 싶은 고래 그리기, 예쁜 돌맹이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고래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풍부한 상상력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완성한 돌맹이 그림 고래들을 전시하고 감상과 작품설명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꾸물꾸물, 내 꿈을~!’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각자의 꿈(밤에 꾸는 꿈, 장래 희망)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며,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자라게(꿈자람)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밤에 꾸는 꿈을 그림일기처럼 매일 매일 그려보는 습관을 갖게 하고, 『개미』와 『뇌』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베르베르처럼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과 희망이 신장되고 실현될 수도 있음을 깨우쳐주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친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멋진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멋진 ‘상상친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진정한 친구란?’에 관한 의견을 나누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고민이나 걱정을 이야기하고 베게 밑에 두고 자면 밤사이에 모든 걱정을 가져간다는 걱정인형(Worry Doll)을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의 주제는 ‘소리’였습니다. 눈을 감고 다양한 자연의 소리를 감상하고, 친숙한 소리를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힐링을 가져다주는 빗소리와 파도소리를 재현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이 빗소리를 내는 악기 ‘레인스틱(Rain Stick)’과 바닷소리를 내는 ‘오션드럼(Ocean Drum)’을 직접 만들어 합주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정성껏 만든 악기를 소중히 간직하고 종종 위안이 필요할 때 연주를 하거나 위로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4회에 걸쳐 꿈자람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어린이들과 교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해 하던 어린이들이 두 번째 시간부터는 스스로 목에 매달리고 등에 올라타는 등 온몸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바람에 적잖이 힘도 들었고, 집중을 하도록 목이 아프게 소리쳐도 분위기가 잡히지 않아 애를 먹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자정 능력도 보여주고 가까이 다가와 주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매일 올 수 없느냐고 재촉하는 어린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못 나가게 하는 억지를 부리는 어린이, 마지막 시간에는 돌아서서 인사도 하지 않고 울먹이는 아이들을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감정을 대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으로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긴 부족했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궁한 잠재력과 추상적인 꿈을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알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심껏 후원해준 한국예술위와 강원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나눔교실

03

깨달음이 담긴  
한 마디 한 마디



1318무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나만의 향수 만들기' 외  
지역아동센터 담당 생활복지사 박선미(37세)



인생나눔교실이 시작되기 전, 다양한 주제 중에 자신이 하고 싶은 수업 8개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지긋한 낯선 분들의 등장에 다소 거리감을 느껴 수업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었으나 회차가 지날수록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밝은 분위기의 수업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중 아이들의 관심과 호응이 좋았던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1회차 ‘당신의 향기’ 멘토링 프로그램은 첫 수업이니만큼 멘토와 아이들 모두 긴장한 분위기였으나, 향수를 함께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하여 지켜보는 우리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향을 하나하나 직접 시험해 보며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의 가치를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을 만들어볼 수 있었던, 어디서도 체험해보지 못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회차 ‘멘토의 처방전’ 멘토링 프로그램은 담당 멘토가 멘토링 전 미리 센터에 방문하셔서 아이들의 특징, 성격 그리고 가정환경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들으시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고민거리를 하나하나 끌어내어 멘토의 처방전으로 마음을 달래주는 세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3회차 ‘사소한 것의 귀중함’ 시간에는 식물 액자를 만들어보면서 사소한 것에 마음을 담으면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식물 액자 만들기에 서툰 아이들을 멘토님들이 일일이 도와주시며 동분서주 애써주셨습니다.



4회차 ‘복면대장’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업 스트레스에 억눌려 있던 아이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자신이 만든 종이 가면을 얼굴에 써 보기도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역할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5회차 ‘인생책 만들기’가 진행 중이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멋지게 상상해 보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무언가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생각해볼 수 있는 알찬 시간들로 채워져서 매주 감사함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와 성공의 길을 걸어 본 인생 대선배들의 깨달음이 담긴 한 마디 한 마디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쏟아내 주시는 멘토 여러분! 저희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인문예술캠프

### 사업목적

가족·청년들이 인문·문화예술을 통해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소통의 기회를 얻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캠프

### 정책대상

청년층 및 가족

### 운영형태

인문적 성찰을 음악, 미술, 공예 등 다양한 예술로 체험

### 연간운영

연간 10회 캠프 진행, 1,000여 명 참여

01

이미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본성'

02

달빛감성 숲에서  
바다, 바다...

03

멋진 청년,  
배낭을 메다



인문예술캠프

01

이미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본성'



가족 인문예술캠프, '개구락지(開口樂知)-동시를 낳는 향아리' 참여 수기

2015. 7. 30(목)-2015. 8. 3(월)

참여강사 **고영직**(48세, 문학평론가)



## — 누구나 시인

누구든 (동)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동)시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나, 어른들이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를 쓰고, 쓴 시를 발표하면서 가족들이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동시 제목을 맞추는 동시 놀이의 경우에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특히 선물 (동시집)에 혹한 어른들의 참여가 활발했습니다.

아이들은 동시 쓰는 일을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어떤 아이들은 5-10편씩 써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인으로 태어납니다. 아이들은 물론이요, 어른들을 시인으로 만드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본성(nature)'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예술캠프

02

달빛감성 숲에서  
바다, 바다...



가족 인문예술캠프, '숲에서 바다-시의 숲에서 두근두근' 참여 수기

2015. 7. 29(수)~7. 31(금)

조은영(45세), 최윤희(13세) 가족



## 여행

캠프 하루 앞날, 둘째 딸 화야와 함께 ‘달빛감성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배낭을 하나씩 메고 김해에서 창원으로, 그리고 창원에서 원주 간 버스를 타고 4시간을 움직였습니다. 달빛 감성이란 티켓을 받고 마치 우주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두근두근거렸습니다. 늘 아이들만 캠프에 보내는 엄마로 또는, 캠프를 진행하는 사람으로만 살아왔는데 이번엔 아이와 함께 한 사람의 참가자 자격으로 가게 되어서이겠지요.

어릴 때, 그러니까 화야만 할 때 방학이면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 가며 친척집으로 여행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와 화야에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주로 네 살 위 오빠랑 같이 일찍 시집간 언니가 사는 경북으로 여행을 했고, 오가며 만나는 모든 것이 신기했고, 여비로 받은 돈으로 차표를 끊고 과자를 사 먹던 일도 여행의 큰 기쁨이었다고 말입니다. 주로 승용차를 타고 움직이고 여행하는 딸에게는 낯선 경험이 될 듯했습니다. 차표 끊기와 보관, 간식 사기를 주로 화야에게 일임하며 짧지만 긴 여행을 즐겼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늘 바쁜 엄마와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함께 우주여행을 하면서 언제나 합이 척척 맞지는 않았습니다. 걷고, 먹고, 원주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인제로 가는 버스를 타는 순간까지도 서로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여름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멀고 가까운 산과 골짜기에 구름이 피어오르는 차창 밖을 보며 가족캠프에 들어가서 뭔가 더 좋아지기를,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어울려 진짜 바다가 되기를 미리 기도했습니다. 인제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그렇게 만해마을에 닿았습니다.

## 만해마을

아름다운 소나무 숲과 강이 흐르는 곳에 만해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문예술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곳곳에서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며 본 말린 풀꽃과 향초, 좋은 글귀가 쓰인 쪽지 글 등에서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만해마을을 오가는 곳곳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짜 놓은 프로그램 등은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귀하게 대접받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첫날 첫 워크숍을 마치고 난 저녁, 도시락을 가족별로 정성껏 싸서 ‘님의 침묵’ 앞 광장에 돛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촛불 아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는데, 함께 둘러앉은 가족들이 천천히 밥을 먹으며 각자 많은 생각이 오고 갔던 거 같습니다. 엄마는 ‘아...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함께 소풍 온 거 같아 너무 좋다’ 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과 때에 촘촘하게 깊은 배려로 준비해 놓은 그 많은 정성을 듬뿍듬뿍 받으며 함께 참여한 친구 빵숙과 또 다른 가족들은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 — 시의 숲에서 두근두근

시의 숲에서 두근두근 기다리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탁 선생님과 노미 선생님이었습니다. 소나무 숲 아래 바위 위, 돌 사이, 바람 사이에 시집을 펴 두시고 우리 다섯 가족을 기다리고 계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숲에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기 놀이, 손 잡고 등을 대어보기, 돌이서 또는 여럿이서 손을 잡고 꼬았다가 풀어보는 놀이 등 천천히 충분히 놀며 마음과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닮은 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시 숲 두근두근 반’에서는 서로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딸 화야가 고른 시는 권정생 선생님의 ‘학교 갔다 오니까’라는 시였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학교 갔다 오니까 \_ 권정생

학교 갔다 오니까  
집 안이 죽은 듯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야!”  
“엄마야!”  
부엌에도 안 계시고  
광에도 안 계시고  
어디 갔을까?  
순철이네 판자벽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고  
수돗가까지 나가 보고  
마룻장 위에 책가방이  
절룩 비탈로 놓여지고  
나도 그 옆에 시무룩  
앉았습니다  
끼적끼적  
아가처럼  
울음보를 참습니다  
문득  
엄마가 안 계신다는  
민우가 떠오릅니다  
울음보라고 놀려 준 것이  
싸악  
뉘우쳐집니다.

엄마 아빠는 바쁘고, 언니와는 다섯 살 터울이라 언니가 중학교에 간 이후 초등 2학년 때부터 화야는 혼자서 아무도 없는 집을 맨 먼저 만나는 외로운 아이였음을 시 한편으로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 — 자기 안의 침묵 깨우기 여행

시 숲에서 눈을 감으니 더 크게 들리는 소리를 담아보기, 몸짓을 일으켜보기, 다방과 강에 가서 맛을 느껴보기, 차가운 물에 들어가 느껴보기, 오후의 나른함에 땡땡이치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점점 글이 모이고 시가 태어났습니다. 달빛감성 우주여행에서 예술가는 차표를 들고 탄 사람들에게 각자 가지고 있는 신화를 쓰도록 도와주는 듯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워크숍은 아이도 어른도 저마다 자기 안의 침묵을 깨우는 시간 아니었을까 합니다. 친구 빵숙이의 맘 속에 잠자던 시심을 깨워주었고, 저는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신화를 쓰는 시간이었을까요?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하나씩 물어보려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몸 깊은 세포 속에 달빛감성 바다에서 받은 따스함을 자양분으로 채워 넣었을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 참여한 사람 모두 감동하고 새로움을 발견하는 시간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즐거웠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를 돌보고 너를 돌보고…… 진짜 달빛감성 맞네.”

빵숙 말처럼, 마지막 날 밤 달과 별 아래에 누워있던 시간까지 알싸하니 짠하니 오래도록 감동에 젖어있을 것입니다.

### — 서로 바다(받아) 주는 바다가 되길

인문활동가, 예술가, 진행요원들과 가족들이 2박 3일간 바다가 되고 싶어 서로 바다(받아) 주고 바다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달빛감성 여행 중입니다. 돌아와서 딸과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마음만 갖고 서로에게 해주지 못한 일을 물어보고 함께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함께 달빛감성 여행에 참여했던 친구 빵숙에게도 물어보니 ‘아직 채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의정부로 광명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엄마들과 사진을 주고받으며 또, 감동을 주고받으며 서로 숲에서 그러했듯이 바다(받아) 주며 살자 합니다.

달빛감성 여행이 일회성 우주여행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와서도 계속 여행하게 하고, 더 오래 여행하게 합니다. 강원도 만해마을과 사람들의 무늬가 그리움의 무늬로 오래 남아 있을 것이고, 우리 딸과 친구와 이웃 가족들이 서로의 말과 마음을 바다(받아) 주고 바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문예술캠프

03

## 멋진 청년, 배낭을 메다



청년 인문예술캠프, '멋진 청년' 창작물

2015. 11. 20(금)~11. 22(일)

<배낭을 메다> 프로그램 참여자 14명 공동

‘멋진 청년’을 주제로 14명의 청년이 함께 써 나간 단상을 소개합니다.

1

스물아홉... 몇 달만 있으면 서른이다. 남들은 내게 작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직 제대로 내 이름을 걸고 쓴 글이 없다. - 이혜진

2

어릴 적 나의 꿈이던,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지만 온전한 나의 글,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써본 지 오래다. 난 내 꿈을 이룬 걸까?  
꿈이 무엇이냐고 묻던 세상은 나에게 이제 직장은 어디냐고, 결혼은 언제 하느냐고, 집은 있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이런 대답에 구구절절 대답하고 싶지 않다.  
이제 세상이 묻지 않는 나의 경계를 넘어보려 한다. - 김경남

3

무작정 집을 나섰다. 이젠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것에 대해 쓸까? 또 물음이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보인다.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싶은 걸까? 바빠 걷는 걸음, 웃는 얼굴, 짜증 나는 얼굴.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을까?  
각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써보고 싶다. - 박병찬

4

이런저런 의문거리를 되뇌던 중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백발의 노인을 보게 되었다. - 배현지



## 5

노인은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잘도 떨어지는구나……”

나는 노인과 조금 떨어진 곳에 엉거주춤 앉았다.

“다 부질없지……”

“……”

나도 모르게 노인을 바라보다가 그와 눈이 마주쳤다.

“부질없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뭘 그렇게 쫓으면서 정신없이 살았나? 어느새 거울을 보니까 백발이 성성해져 있는 거야. 저 나뭇잎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와 닮은 것 같네.

새끼들 먹이고 입히느라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처럼 살아보겠다고 그랬는데, 늙고 보니 허전해.” - 설은정



나는 노인의 말을 듣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노인에게 물었다. - 정대웅

“어르신, 지금 와서 제일 후회되는 게 무엇인가요?”

“후회? 난 결코 내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진 않는다네. 다만...” - 박교빈

노인과의 대화 속에서 난 남들만큼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럴싸한 직장과 가정을 갖는 걸 목표를 두었던 건 남들에게 끌리지 않고 싶었던 알팍한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 자존심을 지키는 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난 무얼 하고 싶은 걸까.

오래간만에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서 만나러가기로 했다. 괴팍한 친구이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다. 친구에게로 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었다. 한 유치원 버스에서 쪼끄마한 꼬맹이가 내렸다. 아빠가 곧 오신다며 여기에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며 선생님이 당부를 남긴 후 버스는 떠났고 아이는 내 옆에 앉았다. - 이연의

괴팍한 친구를 만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었고, 나는 내 옆에 앉은 아이에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물었다.

“아이야 너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냥 아빠랑 빨리 집에 가서 엄마랑 누나랑 저녁 먹고 싶어요.”

아이의 대답에 나는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거창하게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온 건 아닌가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상태로 괴박한 친구를 보기 위해 다음 버스에 내 몸을 실었다. - 정지훈

10

친구를 만났다. 어릴 적부터 함께한 친구는 매사에 거침이 없었다. 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았고, 늘 하고 싶은 일을 참지 않았으며,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 친구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만 하면서 살았지만 하고 싶은 것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친구는 발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친구와 오늘 나눈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난 멋진 청년이었고, 앞으로도 멋진 청년으로 남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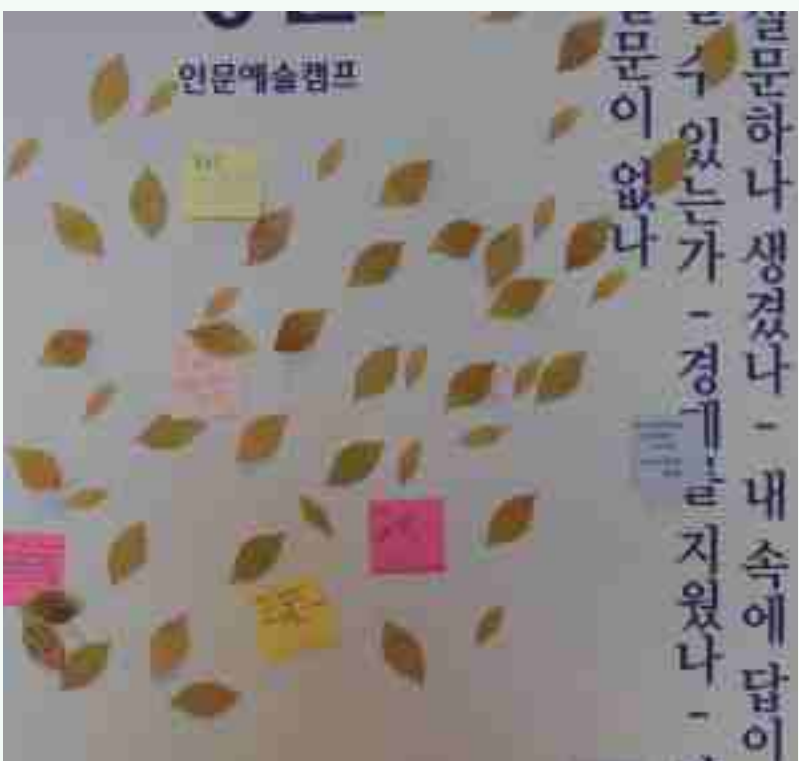
그랬다. 청년이란 말에 신체적인 나이는 제한이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걸까. 매번 눈치만 보고 살진 않았다. 그러면서 나이만 먹고 있진 않았다.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 이효진

11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질문을 바꿔보자. - 표두란

12

그럼 나도 멋진 청년으로 살아보는 게 어떨까?  
그럼 멋진 청년으로 살려면 어떡해야 할까?  
어차피 정답은 없는 인생 아닌가!  
가장 나답게 사는 게 정답이 아닐까? 그럼 가장 나답게 살려면 어떡해야 하지?  
질문에 질문을 더해도 답은 정해져 있다. - 박우진



## 13

어느덧 벌써 여름이 지나 가을의 문턱을 넘어 선선한 9월.  
 집 앞 강변 둔치에 앉아 문득 젊은 시절 나의 고민들과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보니  
 웃음이 난다.  
 도대체 뭐가, 무엇이 문제였단 말인가! 모두가 행하는 삶의 태도는 제각기  
 다르지만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정해진 답도 없다. 올바른 길도 없다.  
 언제일까, 어디서일까, 누군가와 함께일까, 아니면 혼자일까, 돈이 많거나 적거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나 스스로가 행복한 것. 그것을 찾아 매 순간을 즐기면서 사는 게 가장 멋진  
 인생이 아닐까 한다. 모르겠다. 그냥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 윤하나

## 14

스물아홉, 내 인생 마지막 20대.  
 꽃같이 향기났고,  
 별처럼 거침없었으며,  
 파도처럼 밀려왔었던...  
 9월의 무성한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있었던 20대의 끝을 뒤로하고  
 30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난 오늘부터 멋진 청년의 자세로 새로운 펜을 들어본다.  
 - 권비가일

이 2D  
L T L S S  
아카데미

# 인문독서아카데미

## 사업목적

지역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민에게 다양한  
인문적 소양을 체험할 기회 제공

## 정책대상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

## 운영형태

도서관 등 지역 문화시설에서 총 20회(1회 2시간) 강의

## 연간운영

전국 60개 기관, 1,218회, 12,000여 명 수혜

01

노트북을 훔친 아이,  
세상을 다시 보다

02

취준생의 해방구,  
인문학 그리고 오페라

인문독서아카데미

---

01

노트북을 훔친 아이,  
세상을 다시 보다



순창군립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참여 수기  
장교철(순창고 교사)

벚꽃이 만개하던 올봄 초. 평소 이용하던 도서관의 도서관장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 다소 안면이 있었습니다. 관장은 제가 교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며칠 전에 도서관 카페에 비치해 둔 노트북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CCTV를 돌려 확인한 결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학생의 소행이라 했습니다.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의 상처를 고려하여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도서관 측의 요청이었습니다.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학생에 대한 기본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특별 관리해 온 학생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커운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학생을 별도 공간으로 불러 잘못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다음 본론을 이야기하자, 바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너무 갖고 싶었어요.”

“잘 보관하고 있지?”

다시 가지고 오면 모든 걸 덮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노트북은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이 없고, 경계의 눈망울로 불안이 가득한 표정. 이 학생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어머니는 재혼했고, 또 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의붓아버지와 생활하면서 구타에 시달렸습니다. 끝내 버틸 수 없어 중학생인 남동생과 함께 학교에서 이십 리 떨어진 시골로 왔습니다. 팔순의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는 단칸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준 지원금은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용돈 3만 원. 등학교 버스비도 부족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가진 핸드폰이나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단절된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인성인권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장도 이 학생의 학교생활과 가정형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기 초, 교칙 위반으로 이미 인성인권부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딱해서 도울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배려하는 걸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의 자발적 후원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창경찰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익명의 독지가가 컴퓨터를 기증하기도 하고, 순창 자활센터에서 집수리도 하고, 할머니가 끼니를 준비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부엌도 개조했습니다.

학생이 공부에 전념하게 하는 일이 남아 있었고 그건 제 몫이었습니다. 도서관 노트북을 통해 알게 된 학생. 그간 공부의 끈을 놓아버린 이 학생에게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안이 보였습니다. 학생과 함께 <인문독서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과 불편한 인연을 끊고 새로운 삶의 전환이 될 공간으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5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저는 이 학생과 함께 했습니다. 학교에서 알지 못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어려운 공부를 도서관에서 배우게 했습니다. 처음엔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2시간 내내 졸다 깨다를 반복하다 무의미하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유를 묻고, 들을만한 가치가 있음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김용택 시인이 특강을 하던 날, 초등학교 학생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진지하게 듣더니,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런 게 시라면 저도 쓸 수 있어요.”

“그래, 시는 별것 아니야.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모든 일이 다 시가 될 수 있지. 왜냐하면 너는 네 친구들과 전혀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적절한 답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힘든 삶도 모두 가치 있고 소중한다는 걸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씩 학생의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연 자료집의 내용을 미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오늘 저녁 강의 내용 중 기억나거나 인상 깊었던 것을 이야기하게 하고 제 생각도 들려주었습니다. 체화된 내용을 스스로 성찰할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학생은 메모 노트를 챙기고 수시로 강사가 말한 내용을 적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종종 도서관에 일찍 나와 강의 주제에 대해 사전 검색도 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자연과 생태’ 주제가 있던 10월, 나뭇잎이 물든 가을 저녁, 서남대 김성호 교수가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새와 인간’의 이야기로 연속 다섯 강좌를 하던 때,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새 박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동네 사는 새들을 모두 찾아서 알아보고 싶어요.”

오색딱따구리 삶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에 모두가 숨죽이며 감동하고 있을 때 이 학생도 함께 감동했고 앞으로의 삶의 길이 보였던 게 아니었을까요? 가난과 사랑의 결핍으로 자칫 세상에 방치되거나 음지에서 평생 습한 길로 가려던 한 학생이, 도서관과 도서관 노트북이 인연이 되어 도서관에서 <인문독서아카데미>를 만나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벚꽃의 눈부심에서 단풍의 아름다움을 알게 한 긴 시간의 인연을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시간은 그 아이에게 먼 훗날 김용택 시인을 뛰어넘는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김성호 교수의 호기심과 탐구력은 이 학생에게 또 다른 길을 안내했을 것입니다.

퇴근하고 학생과 함께 <인문독서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위해 도서관에 가다가 중국집에 들러 짜장면을 먹으며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때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내년에는 짬뽕 국물 후룩 후룩 마시면서 더 성숙해질 학생과 다시 이야기하면서 웃고 싶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문화로 융성해지는 세상 아닐까요!

인문독서아카데미

02

취준생의 해방구,  
인문학 그리고 오페라



대구범어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뜨거운 여름에 만나는 시원한 여름 오페라' 참여 후기  
김도건(31세, 취업준비생)

### — 취업준비생, 그 꼬리표 같은 말

벌써 수차례 시험을 쳤지만, 저는 여전히 취업준비생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온 시험은 매번 아슬아슬하게 떨어져 그 끈도 놓지 못하고, 마약처럼 제 몸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취업준비생이라고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뭉가를 하고 있는, 그러나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 근처에 범어도서관이 생겨 공부하던 장소를 옮겼습니다. 범어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다르게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선 ‘저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롭고, 행복한 사람들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제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 인문독서아카데미와의 만남

평소 때보다 조금 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공부가 잘 풀리지 않아 1시간 정도 더 책상에 앉아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항상 집으로 가던 지하 1층의 문이 잠겨 있었고, 마침 직원이 있어 물어보니 6시 이후에는 문이 잠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페라’라는 글자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뭉가 부러웠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에게 혹시 지금도 참석 가능하냐고 물으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공부도 안되는데 나도 한번 즐겨보자’라는 보상심리가 작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접한 첫 <인문독서아카데미>는 장일범 선생님의 ‘뜨거운 여름에 만나는 시원한 여름 오페라’였습니다. 이 강연은 오페라 한 편에 대하여 간단한

배경지식을 강사 분이 설명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오페라를 동영상으로 관람하며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엔 장일범 선생님이 누구 신지도 잘 몰랐지만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었고, 일부 참가자들은 열정적으로 본인의 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강연 시작 전에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오페라에 대해서라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지루하고, 진부한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인 ‘대구 국제오페라페스티벌’이 매년 열리지만, 또 또한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오페라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날도 ‘그냥 영화 한 편 본다 생각하고 있지 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오페라는 2015년 7월 14일 수업의 <아이이다>였습니다.

### — 새로운 만남, 그리고 해방감

굉장히 오래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뜻밖에 1800년대 작품이었습니다. 오페라 <아이이다>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온 에티오피아의 공주 아이이다와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 암네리스 공주의 삼각관계를 기반으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국제적 관계들이 얽힌 이야기입니다.

진부한 이야기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에서 보이는 화려한 무대와 성악가들의 발성, 그리고 극 전개에 대한 인문학적인 해설을 통해 제 앞에 오페라가 실제로 펼쳐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오페라 <아이이다>에 빠져들게 되었고, 2시간 강의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푹푹 참아왔던 문화생활에 대한 갈망과 부러움이 폭발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 여운이 남았습니다. 이 기분을 또 느끼고 싶어, 직원에게 다음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 삶의 해방구가 바로 이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우리는 왜 인문학을 듣고자 하는가?

우리는 왜 인문학을 배울까요? 왜 사람들은 인문학 강좌라는 것에 몰릴까요? 인간을 탐구하고, 우리 삶을 되돌아본다는 번듯한 말들이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인문학이란 그냥 듣고 싶고, 참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문학 수업을 통해 제가 살아 있음을 느끼고 그 폭발할 것 같은 감정들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3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이 시대에 이젠 그만 포기하고 살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문화생활, 인문학적 상상력이 발휘 되는 그 일련의 행태는 포기하지 말자는 계시와 같은 것이 바로 <인문독서아카데미>였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임용시험이 남아있습니다. 매년 시험을 쳐 왔지만, 올해는 다를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특별하니까요.

끝으로, <인문독서아카데미>를 경험하게 해 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범어도서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경영도서  
영영영영영  
영영영영영

# 병영독서코칭

## 사업목적

병영 내 독서활동을 통해 장병들의 정서안정 및 병영문화 개선

## 정책대상

전국 군부대 및 국군장병

## 운영형태

1개 부대별 7~10회 내외 독서프로그램 운영

## 연간운영

150개 부대, 1,100여 회, 33,000여 명 수혜

01

2주에 한 권,  
설렘과 기다림의 시간

02

작은 변화로 막을 연  
독서인생

03

독서로 만드는  
따뜻한 병영문화





병영독서코칭

---

01

2주에 한 권,  
설렘과 기다림의 시간



육군 2사단 31연대 2대대 박경호 일병(21세)

## — 억지로 2주에 한 권 읽으며 독서 재미 느껴

평소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책을 많이 읽기도 했지만, 군대에서 독서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개인 정비 때면 TV 보기 바꿨고 전화하기 바빠서 책과는 전역하고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대에서 독서코칭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더운 여름에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 읽을 기회를 준다는 말에 신청했습니다.

처음 독서코칭에 대해 들었을 때는 독서코칭이 속독법처럼 책 읽는 스킬을 가르쳐 주는 코칭인 줄만 알았습니다. 독서코칭에 참여하면서 ‘내가 상상하던 것과는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코칭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읽었던 책이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 생각이 뻗어나갈 수도 있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조금씩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독서코칭을 받으면서 책이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인이 알아야 할 한국사 10가지』라는 책을 읽고 가진 독후 활동이었습니다. 조별로 뜨거운 현안의 역사 문제에 대하여 만화나 CF 등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3개 조가 ‘빼앗긴 문화재’라는 같은 주제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 조의 표현방식과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와 같은 책을 두고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대에서 독서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지만, 독서코칭으로 인해 ‘억지로’라도 2주에 한 권씩 읽으면서 책을 읽는 재미와 의미도 다시 되찾았고 2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꾸준히 책을 읽다보니까 ‘내가 독서를 많이 하게 되었구나’라는 뿌듯한 마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 2주에 한 번씩 독서코칭을 기다리는 설렘이…

같이 독서코칭을 받는 동기 및 선임들과는 다음 회차 코칭도서가 무엇인지, 그 책이 어떤 내용이며 재밌는지 아닌지를 토의하며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2주 동안 같은 책을 같이 읽으면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설명해주고 도와주면서 책 읽는 재미를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독서코칭에 참여한 모두가 다음 코칭 때는 어떤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될지에 대해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책을 완독했으며, 책을 미처 다 읽지 못할 것 같으면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책을 읽을 정도로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몇 주 전에 코칭을 나눈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은 지금까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의미와 감명이 남달랐던 책으로, 신청하길 잘했다고 동기들에게 말하고 심지어 여자친구에게도 추천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가족 간의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 가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게는 너무 뜻깊은 책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을 2주에 한 번씩 만나게 되니 생각의 틀과 깊이가 달라진 것 같아서 우선 그것이 제 스스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책이란 무릇 읽어도 읽어도 끝이 없고, 같은 책을 다시 읽어도 그 내용이 늘 새롭다는 말을 다시 곱씹게 되는, 책에 대한 설렘을 다시 갖게 되는 그런 독서코칭이었습니다.

비록 아직 독서코칭이 끝난 것이 아니고 보완되어야 할 점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힘든 생활을 하는 군인이 2주에 한 번씩 책과 설렘에 빠질 수 있고 오로지 책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라는 특성상 책을 접하기도 쉽지 않고, 책을 등한시하기 쉬운 환경에서 독서코칭은, 책이란 무엇이며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상기시켜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이뤄지는 독서코칭을 기다리던, 기분 좋은 시간을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7번의 독서코칭이 짧게 느껴져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앞으로 책 많이 읽고 가까이하며 지내야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만일 책에 대한 권태기가 오더라도, 독서코칭의 추억을 생각하며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병영독서코칭

02

작은 변화로 막을 연  
독서인생



해병대 2사단 8연대 정보통신중대 지건영 상병(22세)

## —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일구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수많은 경험들은 삶에 강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을 모두 직접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하고, 경험 속에서 얻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책은 그 경험과 지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이렇게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독서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않을뿐더러 책을 읽어도 쓰인 글자들의 내용만 이해하고 끝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입대 후 21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독서를 하려 노력했습니다. 부대에 적응할 동안 몇몇 자기계발서들은 제게 힘이 됐고 저를 변화시킬거라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는 탓에 흥미를 잃었고 책보다는 점점 TV나 스포츠가 주는 쾌감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올바른 독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던 중 독서코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좋은 책을 소개받고 책을 잘 읽는 스킬을 배울 수 있을 거로 생각해서 참여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엔 책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아도 내용을 알려주고 독서스킬을 알려줄 거로 생각했습니다. 코칭에 참여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책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정말 큰 오산이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강사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책의 의미를 공감도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 — 우물 안에 갇혀있다 지혜의 바다로 나온 느낌

그런데 다른 해병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며 태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코칭 책은 한국사에 관한 책이었고 부끄럽지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던 분야였습니다. 그렇지만 코칭에 참여하기



위해 2주간 열심히 다 읽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어렵듯이 기억하며 강사님의 말씀, 해병들의 발표를 들으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다음 2주 동안은 책을 한 번 읽은 후 제가 가치 있다고 느낀 부분들을 다시 읽고 느낀 점을 정리했습니다. 코칭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코칭이 시작되고 의견을 당당히 발표했고 다른 발표들과 강사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구나.’ 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등의 깊은 사고를 2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책의 겉 내용 안에 숨어 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는 독서코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스스로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관심 없는 분야의 책이라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해병들 앞에서 생각을 당당하게 발표해봄으로써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독서코칭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조별활동입니다. 재미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대표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쉬워 보였지만 막상 앞에 서니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느껴지던 카타르시스는 대단했습니다. 제 자신이 변하는 것을, 당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독서코칭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정말 큰 변화를 이뤘습니다. 독서코칭의 가장 큰 장점은 강사님의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별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에 구성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독서에 흥미와 동기부여를 유발합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책을 가까이하고 책의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합니다.

### — 독서인생은 이제 시작

독서를 마친 후 독서코칭 시간을 통해 강사님께서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해주시고, 서로가 느낀 점을 말하고,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올바른 독서습관이 형성되고 책을 쓴 저자가 전달하려 했던 소중한 지혜를 발견합니다.

매번 새로운 장르의 책을 소개받은 덕분에 흔한 자기계발서만 가까이하던 저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각각 색다른 재미와 가치를 느낍니다. 우물 속에 갇혀있던 제 독서의 배가 다양한 형태로 끝없이 펼쳐지는 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독서코칭 프로그램은 곧 끝나겠지만 제 독서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독서를 가르쳐 준 <병영독서코칭>에게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병영독서코칭

---

03

독서로 만드는 따뜻한  
병영문화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문희재 중위(28세)

## — 독서의 즐거움은 인류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

고대와 르네상스의 가교 역할을 했던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Cicero, Marcus Tullius)는 학문적 열정이 매우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 독서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매 순간 읽어라 (read at all hours). 들어가나 나가나 읽어라 (read as goes in, read as goes out). 이끌기 위해 읽어라 (read to lead).”

서양에서만이 아닙니다. 공자의 논어 첫머리에는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어떤 것을 배워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열을 가져다준다는 뜻입니다.

배움은 즐거운 일입니다. 독서활동으로 대표되는 ‘아는 즐거움’은 우리 인류에게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키케로는 자신이 그 무엇보다 사랑했던 딸 툴리아의 죽음을 직면한 후 부와 권력, 명예를 모두 버리고 공부와 저술활동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키케로 자신이 “마음을 가다듬는 것은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던 것처럼, 독서와 배움을 통해 영혼을 풍성히 하여 슬픔을 이겨낸 것이죠.

이처럼 독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책 읽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당위적 이상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연간 독서량은 8권 정도로 한달에 한 권도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이 모인 군대는 독서량에 있어 더욱 취약합니다. 환경적으로 학업을 하는 공간도 아니고, 세련된 도서관이나 신간들이 깔린 서점이 있는 것도 아니며,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장병들, 특히 병사들의 경우 대다수가 ‘강요된 학업’의 한복판에서 군에 입대하였기에



독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과 이후에 찾아오는 ‘달콤한 휴식’이 연상시키는 풍경 속에 독서가 끼어들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 — 독서는 개인의 행복과 병영문화 개선의 근간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의 여러 가지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젊은이들을 위한 ‘책과 문화가 있는 병영’을 만드는 데에 필수적인 도서의 보급, 독서문화 조성, 북카페 설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출 수 있게 하였고, 다수의 부대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2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부대 도서관을 관리하면서 <책과 문화가 있는 병영캠페인 독서코칭>에 참여하였고 그 안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능성은 독서 행위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스스로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책의 내용을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즉, 독서는 전적으로 자율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지난 2년간 독서코칭을 진행하며 단 한 번도 독서나 강연에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병사들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두었고, 그들이 독서코칭에 참여하게 하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강연에 올 수 있는 환경과 오고 싶게 하는 요소에 집중하였습니다. 강제로 책 한 권을 읽은 병사 수십 명을 만드는 것보다 스스로 책을 읽고 생각하는 한 명을 만드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이는 숫자가 적을 때에는 좌절하기도 하고 강제로라도 자리에 앉히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병사들이 누군가가 읽어야 한다고 해서 독서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읽고 싶어서 책을 손에 잡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처음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가지고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올해 독서코칭의 마지막 도서인 김주환 교수의 『회복탄력성』에는 자율성이 행복의 열쇠라는 견해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접하기 전까지 저는 독서코칭이나 병영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접하고 나서 지난 2년의 활동이 ‘자율성’이라는 개념 아래 체계화되는 느낌을 받았고, 독서를 통해 기를 수 있는 자율성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병영문화 개선의 근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 — 군대, 더는 독서문화의 불모지 아니다

자율성을 통한 성과는 외적 부분과 내적 부분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서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 6전대 도서관은 이름만 유지할 뿐 이용객이 거의 없는 황폐해진 공간이었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이는 하루에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았고, 대다수 장병들은 도서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서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고, 관심 있는 장병들의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지금은 전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의책 나누기 운동본부와 국군문화진흥원의 도움으로

2년간 3,500여 권의 도서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각종 상담과 동아리 활동 및 병사 자율위원회의 터전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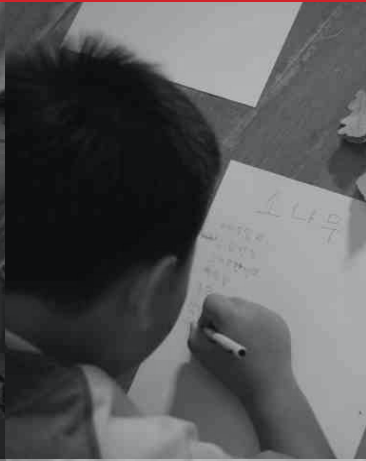
또한 병사들이 자율적으로 ‘심야담’이라는 독서토론 동아리를 만들어 매주 활발한 독서와 토론을 진행하고,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병사들은 부대에서 추진하는 각종 봉사활동의 선두에 서서 아름다운 병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독서코칭과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합리적 토론 문화는 병사들 간 의견 교류의 장을 열면서 장병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2015년 우리 부대의 독서코칭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장병 중 한 명인 박찬원 병장은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마치고 나니 책을 읽은 것보다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에서 저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독서와 토론을 통해 얻은 자율성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갖춘 장병들은 보다 따뜻한 병영문화를 위한 중추들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군대는 더 이상 독서문화의 불모지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많은 부분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전파하고 나눌 것인가?’입니다. 미래는 밝습니다. 아는 즐거움을 스스로 깨달은 장병들은 그것을 나눌 최고의 전달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존중과 배려의 문화와 같은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렇듯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우리는 따뜻한 병영, 인생의 귀중한 경험이 되는 병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통을 통한 이해와 화해





세대 / 이웃 / 가족을 이어주는  
인문정신문화



고<sup>고</sup>포는  
차<sup>차</sup>인문  
정신

인문정신문화 정책 체험 사례집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044-203-2000

홈페이지 [www.mcst.go.kr](http://www.mcst.go.kr) 발행인 김종덕

디자인·제작 (주)인디엔피 [www.indnp.com](http://www.indnp.com)

인문정신문화 정책 체험 사례집

# 곳곳에는 인문정신

세대 / 이웃 / 가족을 이어주는  
인문정신문화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